

저소득층 아동 위한 장난감 도서관 개원

낙동북지역, 부산 명지동에

“난 알루드름 장난감이 좋아요.” “우와! 직직꼭꼭 나무 기차예요”

부산 명지동사무소 옆 35평의 작은 공간에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낙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광수)이 6월 13일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문을 연 ‘Happy Children 장난감 도서관’이다.

장난감 도서관은 낙동북지역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난감 도서관 건립지원 복지관 사업에 선정돼 개원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명지동사무소가 별관 1층의 공간을 제공하고 부산 강서구청이 전기세, 수도세 등 제반비용을 지원했다.

개관식에서 진각동 부산경남 교구정장 해명 정사는 “복지관과 관공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장난감도서관을 열게 됐다”며 “어린들의 창조적인 교육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902-3467

하성미 기자

평창 월정사성보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고실 운영

평창 월정사성보박물관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초등학교 3~6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박물관 고실 “어린이 문화 체험관”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환경을 생각하며 남기지 않는 발우공양, 하심을 배우는 108배, 숲 해설가와 함께 상원사 옛길 걷기와 명상, 오대산 달빛 체험, 상원사동종 주악비전상 탁본체험, 다도, 줄걸기 배우는 선체조, 신나는 시장놀이와 문화 골든벨 등.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어린이들에게 불교문화를 바르게 이해시켜 자기 종교에 대한 자부심과 종교생활을 도울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동참비 9만원. (033)334-1817 남동우 기자

호남지역 불교문화 ‘새 시장’ 연다

호남불교문화원 22일 개원...남도불교문화 답사 등 주력

호남지역 불교문화와 문화재를 지키고 불교문화를 통해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한 호남불교문화원이 6월 22일 문을 연다.

호남불교문화원은 6월 22일 오후 6시 광주불교회관 2층 시민선방에서 ‘한국불교의 희망, 호남불교 문화의 어제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개원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의행 법사(광주불교문화대학 교수)가 ‘문화사로 바라본 호남

불교’를, 이재수 박사(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전임연구원)가 ‘호남불교문화의 미래를 위한 제언’ 등을 발표한다.

세미나에 이어 개원식을 열 예정인 호남불교문화원은 광주 상무지구 무각사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호남불교문화원은 △남도불교문화 답사 △호남불교문화의 재발견을 위한 연구사

업 △호남불교문화 바로알기 불교문화교육 강좌 △초중고학생과 신학생 및 직장인을 위한 불교문화유산 교육 △정기간행물 및 지역불교 소식지 발간 △불교 문화재 지킴이 △출판사업 △사찰 사지 및 사보편찬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호남불교문화원은 남도불교문화 답사에 주력할 계획이다. 호남지역의 불교 문화유산을 찾아가 현장에서 불교를 만나

고, 옛 선사들의 가르침을 되새기겠다는 것. 이를 통해 신심을 돈독히 할 뿐 아니라 이웃종교인에게 불교를 이해시키며, 호남 불교문화 저변 확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답사는 ‘2008년 광주 전남 방문의 해’에 맞춰 ‘선사의 숨결 따라’와 ‘권역별 남도 답사’로 나눠 시행한다.

또 불교문화재 발굴 및 보존관리를 위해 불교 문화재 지킴이 사업도 전개한다. 구체적인 실행으로는 불교문화재를 찾아서 문화재 현장을 청소하고 관리까지 도맡을 예정이다. (062)383-3538

새만금 사업 성공 기원 법회

태고종 전북총무원(총무원장 법운)은 6월 23일 오전 10시 전북 부안군 새만금 전시장 앞 특설도량에서 ‘국운융창 경제발전 기원 새만금수륙대제’를 봉행한다.

이 법회는 서해안시대의 중추적인 사업인 새만금 간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복원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법회는 제1부 시련 및 패불이운 의식을 시작으로, 제2부 식전축하공연, 제3부 법요식, 제4부 수륙대제, 제5부 점등식 등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저출산고령화 해법 모색 세미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해결책을 부처님 가르침에서 찾아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 불교사회복지연구소는 6월 22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불교적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탄생과 죽음, 가족관과 노년관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해법을 살펴본다.

‘불교적 출산관 조망’, ‘불교적 가족관 탐색’, ‘불교적 노년관 탐색’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여수령 기자

제20회 삼광 한글 학술상 시상식

삼광한글학술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영제)는 6월 8일 부산 삼광사에서 제20회 삼광 한글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의 ‘삼광 한글 학술상’ 수상의 영광은 김수태 교수(신라대)와 이근열 강사(부산대)에게 돌아갔다.

한글 교육에 앞장 서 온 김수태 교수는 한글학회 부산지회 출판이사, 우리말학회 편집이사, 한국언어학회 편집이사 등을, 이근열씨는 한글학회 부산지회 연구간사와 우리말학회 재무이사를 역임했다.

하성미 기자

계간지 ‘문학 사학 철학’ 창간

인문학의 중심 학문인 문사철(文史哲)의 활발한 담론을 담아내기 위한 계간지 <문학 사학 철학>이 최근 창간됐다.

한국불교사연구회 <불학사학 철학>은 권오민(경상대 철학과) 고영섭(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공동편집주간을 맡고 있다. 두 교수는 1년간 7권의 창간준비호를 발간한 끝에 이번에 창간호를 내게 됐다.

고영섭 교수는 “정통 문법적 지평을 가진 문학 역사 철학과 그것을 토대로 자유로운 지평을 열고, 종교와 예술·어학이 아우르는 잡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활동가 양성·인프라 구축 힘쓸 것”

이준엽 호남불교문화원 실장

“지역의 불교문화를 재발견하여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6월 22일 호남불교문화원을 개원한 이준엽 실장(사진은 “호남불교”을 위해 활동가 양성 및 문화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향후



앞으로 한국사회의 트렌드는 문화가 될 것”이라며 “한국문화가운데 주류문화가 불교인 만큼 제대로 찾고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지금시대에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전주름버니(중·고등학교 불교학생회)와 전북대 불교학생회 출신인 이준엽 실장은 1989년 월간 <대원>기사를 시작으로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사에서 18년간 재직했으며, 올해 1월 현대불교신문사를 퇴직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news.com

“어린이 불교 교육 어떻게 할까”

동원 어린이지도자연수회...불교학교 교사 등 600명 참석

컴퓨터 중독, 입시 스트레스, 난무하는 음란물 등에 무차별로 노출돼 있는 어린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학회 사단법인 동원(회장 지현, 이하 동원)은 6월 9~10일 보은 속리산유스타운에서 제43회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부처님과 하나 되는 여름불교학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는 학인스님 50여명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대학 학생, 사찰 소속 유치원교사와 어린이 법회 담당 교사 등 총 600여명이 참가했다.

첫째 날인 9일에는 여름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캠프활동과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어린이 주위 집중법, 다양한 게임지도 등이 펼쳐졌다.

둘째 날에는 자연 속에서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어린이 명상 방법 등을 직접 체험했다. 연수회 참가자 김경현(29) 교사는



휴과 마른 나뭇잎 등을 이용해 부처님을 그려보는 참가자들.

“불교학교에 적용이 가능한 캠프 프로그램이 많아 큰 도움이 됐다”며 “특히 ‘자연 속에서 부처님 찾기’는 이번 여름불교학교에서 실용 가능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현 스님은 “어린이의 시선을 끄는 재미있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불교의 본질을 이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미래 한국사회의 이바지하는 길이며, 불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글·사진=하성미 기자

봉은사 ‘자문기구’ 발족

위원장 박원순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25명 구성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은 6월 13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봉은사 공식 자문기구 ‘가칭봉은사 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미래위원회 위원장은 박원순 변호사(회 명예작사 대표)가 맡았다.

봉은사의 운영 및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될 미래위원회에는 최영 환경재단 대표,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시민사회활동가들과 김선주 前 한겨레 논설주간, 손석준 前 한겨레 논설위원 등 언론계 인사, 신계륜 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지은희 前 여성부 장관, 김건호 봉은사 신도회장(前 건설교통부 차관) 등 정관계 인사 25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임익수(사회) 승효상(건축가) 장용

철(윤이상 평화재단 상임이사)씨 등 문화계 인사와 정병호 교수(한양대), 모경원 교수(서울대) 등 학계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미래위원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봉은사의 운영과 사찰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명진 스님은 “미래위원회는 봉은사라는 개별 사찰의 운영 자문 역할이 아닌 현대 사회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모임이 될 것”이라며 “종교는 다들지라도 각 분야 전문가이자 오피니언리더인 회원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수행과 포교, 대사회 활동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태고종 총부교구 호국영령위령제

태고종 총부교구(총무원장 원해)는 6월 24일 오후 2시 청주국민생활체육관에서 ‘호국영령위령제 및 보살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원해 스님은 “호국 보훈의 뜻을 맞

이해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수많은 애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에 대한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위령제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043)265-7100

혜철 대전총부지사장

만 인류가 누려야 할 참사랑, 행복, 진리의 이상세계와 태상가정

당신은 당신의 본성이 꿈꾸는 이상세계를 아는가?

당신이 진실로 행복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참된 진리를 추구함에 목숨을 다해 열정을 태울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 당신이 추구하는 진리란 무엇인지 아는가?
- ◆ 생사를 초탈한 절대 공의 세계(반야의 세계)란 어떤 것인가?
- ◆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품성과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체휼하고자 하는가?
- ◆ 대자유함과 무애행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가?
- ◆ 완성된 남자가 나눌 수 있는 천주적인 사랑이 어떠한지 아는가?
- ◆ 깨달은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가?
- ◆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얻은 후 이루어 낼 수 있는 이상세계의 모습을 아는가?

본성의 존재는 온 우주와 하나 되니, 가슴을 관통하여 불어오는 바람에서 부드러운 신성의 손길과 마주하고 맑은 물속에 손을 담그면 그대로 내 몸은 그 맑음과 하나가 된다. 청정한 하늘은 이미 나의 가슴이 되고, 사랑의 눈으로 산을 바라보면 산은 어느새 사랑의 파도를 알아채고 깊은 사모의 정으로 나에게 화답한다. 날아가는 새의 날개 짓에서 진정한 자유 함으로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나비의 자태 속에서 너울너울 함께 춤을 춘다. 바람에 살랑대는 나뭇잎의 연애에 온 몸이 싱그러워지고 죽어가는 개미를 구해주시니 그 개미에게서 터져 나오는 감사의 정은 신의 사랑으로 온 몸을 휘감고 돈다. 신성의 강렬한 파동은 천지를 사랑의 환희로 넘실대게 한다. 또한 본성의 부부가 마주보고 있으면 몸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일어나니 그 사랑의 기운은 서로 어울려 지극한 평화와 미묘한 향기로 피어나 신묘하기 그지없다. 사랑하는 이가 멀리 있다 하여도 사랑하는 마음은 에너지가 되어 상대에게 전해지니 그 사랑 속에 하나 되어 극락의 노닐도다. 서로를 사랑하는 몸짓은 천상의 환희 세, 봉황이 서로 어울려 춤추는 것 같으니 온천지를 환한 빛으로 물들이고 출렁이게 한다. 움직일 하나하나에 사랑의 꽃망울이 터지듯 폭발한다. 이러한 사랑의 황홀함은 오직 본성의 자리에 들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본성의 존재들이 신의 사랑 속에 서로 어울려 살 때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이상세계요, 이러한 세계를 알고 누리기 위해 당신은 강력한 의지로 수행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진실한 깨달음과 본성의 사랑, 행복을 꿈꾸는 만수행자는 귀 기울여 들을 지어다. 그대의 꿈은 존재의 완성이 아니겠는가? 그 목적을 위해 바로 갈수 있는 길을 두고 외면한다면 그대는 참 수행자가 될 수 없으니 가슴을 열어 태상가정에서 참된 스승의 인연과 참된 형제의 인연을 반드시 찾길 원하노라.

태상가정의 존재 이유

부처님,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아시는 참다운 본성의 아버지가 여기에 계시어 모든 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참사랑의 공동체인 태상가정을 내놓으셨을지라. 태상가정은 신의 사랑으로 나와 내가 없고, 모든 종교와 사상을 초월한 오직 신의 사랑만이 중심이 되어 세상을 참행복에 들게 하고자 한다. 태상가정은 개개인의 충족되지 못한 가슴에 찾아버지려 어머니로 때로는 형제와 자매의 사랑과 정으로 신성을 제 각각 그 모양을 달리하여 나타내시어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늘의 사랑으로 위로하신다. 본성의 존재가 미치지 않는 사랑은 너무나 큰 에너지 파동이기때 이 공간에 불어오는 모든 이는 쉽게 이 사랑에 정화되고 동화된다. 그래서 위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해 온 심정과 마음의 문을 열고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일게 된다. 그 결과 모든 타락과 죄악, 업보 등이 사라지고 사랑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태상가정이 만 인류, 만 영계, 만 종교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만 생명이 그토록 그리워 해온 진실한 신의 사랑,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을 나눌 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승의 행복이 전제의 존재목적기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태상가정은 만 인류, 만 생명체의 심정이 안식할 수 있는 진정한 고향이자, 귀의처가 되는 것이다.

태상가정에서 뜻을 이룰 준비된 인연을 찾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품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체휼하신 어머니가 계심을 압니다. 또한 하늘과 자녀들을 위하여 환경적 기반을 준비하신 귀한 존재가 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애끓는 심정으로 제자를 길러 오신 귀한 존재가 계심을 압니다. 이 땅에 신의 사랑을 상속 받아 각기 다른 사명의 기반을 준비해 오신 깨달은 모든 이들이시어! 태상가정에서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신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당신의 열정과 뜻을 이루기 위해 흘린 눈물과 간절한 사모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 이제 만남의 한 때를 말씀하시니 준비된 태상가정과 만나 하늘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그리움을 해소하시어.

더불어 불굴의 의지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이가 있는가? 그대는 고독과 두려움, 삶에 대한 걱정으로 불행하고자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대가 태어난 목적은 오직 하나, 그대 스스로가 신의 현신임을 알아 신의 자녀가 되고 그 분 자체가 되어 이상세계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데 있다. 진실한 신의 사랑으로 개인을 완성하여 아름다운 이상세계에서 함께 하길 원한다면 그대는 태상가정에 올 지어다. 이 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지어다.

태상가정 연락처

전화 053-954-9117
핸드폰 010-6560-9117